

## 2022학년도 입학식 이사장님 축사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법인 인항학원 이사장 최두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인천항과 우리 지역 주요 물류 거점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4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았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막자는 신념으로 어렵게 모은 기금을 우리 인항고등학교 건립에 모두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인천항운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학교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의 인항고등학교가 있기까지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분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꿈을 가꿀 줄 아는 사람만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씨앗을 뿌리는 날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땀과 끼를 마음껏 인항고등학교에서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년 후, 20년 후 학업에 대한 결실을 맺기 위해 고등학교 학창 시절의 주어진 3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인항고등학교는 올해로 벌써 개교 35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35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훌륭하신 선생님 그리고 멋진 친구들과 설레는 항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천항운노동조합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찬 장래 개척의 과정을 밟아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3년간의 시간을 마친 뒤에 여러분들이 넓은 세상에 나아가 이 학교를 설립하신분들의 소망을 담아 인천과 우리나라를 비추는 등불로 빛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인항의 가족이 되는 신입생 191명의 입학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서 있는 여러분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 창궐로 여러 가지 행사 등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여러분의 입학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입생 여러분과 재학생 그리고 인항고등학교 교직원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